

기자 24시

금융강국, 감독당국 환골탈태에 달렸다



한우람

증권2부 lamus@mk.co.kr

지난 13일 매일경제 주주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 2014)는 글로벌자산 운용사 거물들이 몰려들어 이목을 끌었다. 6조원 오백백주 매각을 이끈 스타 매니저 조셉 배 KKR 아시아대표를 비롯해 아시아인 최초 골드만삭스 파트너 출신 존 에하라 유니스캐피탈 회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들인 것은 세계 3위 430조원 규모를 자랑하는 국민연금을 위시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력이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 분야만은 주변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번 콘퍼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기금 등 금융자본은 물론 제조기업들이 투자를 미룬 채 유보하고 있는 막대한

산업자본은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엔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자산운용사 및 투자은행(IB) 육성을 통해 차체를 얹고 글로벌 대체투자 감각이 있는 유능한 인재라는 '드라이버'만 갖춘다면 '한국의 KKR' '한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명품차는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다. 배 대표와 에하라 회장은 모두 한국계다. 유능한 드라이버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차체를 만드는 일이다. 금융 주변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유는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의지 부족 때문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조금만 더 국내 금융사를 배려해 주는 한편 연기금을 감독하는 감사원, 보험사 등 금융사를 감독하는 금융당국 등이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게 시급하다. 대체투자는 투자기간이 5~10년으로 호흡이 길다. 금융감독 방향이 지금까지처럼 단기 업적주의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대체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낯설고 어렵더라도 국내 기관투자자 대체투자 운영결과와 규모에 노후를 의탁할 각종 연금의 성과와 규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읽기

김연희 BCG 아시아유통부문 대표

CEO '2년차 징크스' 극복하려면

스포츠계엔 '소포모어 징크스' CEO도 재임 2년차 하차 많아 신속하고 대담한 의사결정에 소통의 리더십 갖추는게 관건

(BCG)이 미국 S&P 500 기업 중 400곳의 CEO를 대상으로 적어도 4년 이상 연임한, 이른바 성공한 CEO에 대해 조사했다니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발견됐다. 첫째, 취임했을 때 회사 상황이 좋았다고 해서 반드시 새 CEO가 좋은 평가를 받고 연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말해 아주 어려운 기업에 온 CEO라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손에 쥐는 카드를 고를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가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성공한 CEO는 신속하고 대담한 의사 결정으로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보자'는 적극적인 태도로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이를 행동에 옮긴다. 특히 임기 초 성과는 CEO의 경영 색깔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인사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 내·외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는 유동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핵심 자회사를 매각하고 긴축 재정을 진행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직원들의 책임감과 성취 의식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등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외부적으로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정 소비층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 별도 보상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고객관계에 집중한다. 이런 전략적 접근으로 CEO는 단기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명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연임에 성공하는 것이다. 셋째, 성공한 CEO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능했다. 물론 대부분의 성공한 CEO는 중도 사퇴한 경우와 비교해 성과 지표가 좋다.

하지만 실적이 전부 아니다. 관측은 성과를 냈는데도 중도 퇴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로 CEO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결과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이 결과 자체보다도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성공한 CEO는 진행하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일찍 변경하지 않는다. 상황을 인정하고 이사회, 투자자,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며 자신감을 보여 줄 뿐이다.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목표를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논리 정연하게 설득한다. 그래서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들은 CEO를 믿고 기다려 준다. 반면 별다른 설명 없이 이뤄진 CEO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리더에게 2년차는 돌아온다. 이를 프리미엄으로 승화시키느냐, 슬럼프에 빠지느냐는 부임 첫째 다짐하고 목표했던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잘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디서나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다.

포토에세이



다가가고 싶은 아기 모델 13일 서울의 한 포토 스튜디오에서 남자 아기가 여자 아기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모델에 도전하는 자리지만 지나친 꾸밈이나 무조건 인기려는 경쟁심보다는 도래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이 넉넉한 미소를 불러옵니다. <이종우 기자>

기고

국가개조, 정부 동맥경화부터 고치자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었다. 전 국민이 비통해하고, 모두가 죄인이 된 한 달이었다. 뜬눈에 어두운 안전을 핑계한 사업주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구조기관 사이의 협업 부재와 미숙한 처리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들도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 사이의 칸막이 그리고 협업의 실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분노는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그리고 사업주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부정부패의 '철의 삼각'에도 쏠리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제, 대책을 생각할 때다. 첫째, 재난행진에서 나타난 정부 부처 사이의 칸막이 제거와 협업이

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자정부의 확대 발전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전자정부 구축은 부처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다. 전자정부는 행정업무 단순화 사이버 공간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정부 성공의 관건은 부처 간 장벽 허물기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에 성공하여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전자정부 선도국가 가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정부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관심이 줄어들었고, 전자정부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부 부처 사이의 칸막이가 살아나고 부처이기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부정부패의 '철의 삼각' 동맹을 깨려면 감사원이 제대로 일을 해 주어야 한다. 감사원이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그리고 사업주 사이의 유착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감사했다면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감사원의 임무는 막중하다. 늦게

나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니 다행이지만, 감사원은 한밤에 보장된 독립성을 스스로 지켜서 공직 사회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의 사고 원인 분석에서 간과된 것이 예산제도다. 언제부터인가 '기타 공공기관'의 회계에서 감가상각 항목이 사라졌다고 한다. 감가상각계정이 없으면 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요 부품이나 기기 그리고 건물도 낡아서 교체하려면 소속 부처와 기재부 등 예산당국자의 승인을 어렵게 얻어야 한다. 자동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 관련된 대부분의 사고는 기기나 부품의 자동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기기는 위험성으로는 잘 돌아가지만, 안전 관점에서는 수명을 다한 경우가 허다하다.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제때에 교체 주지 않으면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할 때에 이미 품질된 부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되거나 최신 장비와 호환

성이 상실되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한 예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 추돌 사고는 신호기 등 낡은 부품 때문이고, 이것은 자동교체를 어렵게 만든 예산 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부처 간 협업을 기능별 예산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 기능별 예산 제도의 핵심은 '기금 제도'다. 이전 정부에서 통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금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통합된 이후 정보화와 과학기술 행정 등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개혁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통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재난과 ICT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다시 기금 제도를 부활하여 부처 간 예산을 통한 협업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정부를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가 '멘붕'에 빠진 것 같다. 특히 정부 기관은 일손을 놓고 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공선사후(公先私後)의 정신으로 제 기능을 하여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제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www.mk.co.kr 매일경제 facebook.com/mknews @MK_sokbo 발행·편집·인쇄인 張大煥 주필 金世馨 편집국장 全炳俊 100-728 서울 중구 퇴계로 190(필동 1가) 안내 : (02)2000-2114 e메일 : mkmaster@mk.co.kr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제03074-중-16309-1633호 [광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3213-중-14352-4호 제02075-중-1071호 제02070-중-10640호 제02097-중-1173호 [광고]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

안구건조



안구건조·눈피로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가운데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 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의 긴장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눈의 과도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

아간 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어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말기 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 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만성피로 만성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안과리한의원 치료법, 개별 맞춤 3단계 치료

1단계에서는 환자 자신이 자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 까지 치료하므로 치료에 대한 확신



을 느끼는 시기이며, 2단계에서는 증상의 30~80% 정도가 개선되고, 마지막 3단계에선 환자가 느끼던 통증이나 불편함의 대부분이 해소되면서 활력적인 일상을 갖게 됩니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서울점 02-535-5075 · 수원점 031-255-5075 · 남양주점 031-576-7055 · 인천점 032-504-5075 · 대구점 053-254-1273 · 부산점 051-851-5075